

노키즈존 논쟁... “에티켓 교육 우선시 돼야”

‘제주4·3 북한 지령설’ 발언 일파만파 “제주 4·3 역사 왜곡 처벌법 개정해야” 목소리도

■ 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타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영업 방해 행위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 마련 필요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키즈존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해결하기 앞서 부모들의 에티켓 교육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도내에서 노키즈존 식당과 카페 등이 증가하면서 차별과 찬반갈등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주사회복지연구원 김정득 센터장은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노키즈존에 대한 갈등 사례를 설명했다.

김 센터장이 한 포털사이트를 통

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특히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으로, 이는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에 김 센터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가 아닌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필요한 사회적 예절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걸 잘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갑질하는 진상 부모와 고객들을

환영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하고, 업주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으로 신경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강동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소장,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과장, 김대희 CBS 기자 등이 참석해 노키즈존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경근 관장은 “노키즈존의 찬성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문제라는 뜻이다. 노키즈존은 성인의 문제를 아동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우 부회장은 “노키즈존 설정 업장은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이용자들이 그런 곳을 선호한다”면서도 “제주에서도 한 업주가 어린이 관련 사고로 46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 일년별이 발생 가능한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담은 제주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 관련 제주 방문 일정에서 이른바 ‘4·3 망언’을 시작하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같은 날 ‘제주 4·3사건, 명백히 북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지역 정치권과 도내 4·3관련 단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태 의원이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거지 우장을 하고 있다”며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발언 시작 후 15일 이날까지 여전히 본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제주 4·3사

건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위성근 의원(제주 서귀포시)과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영호 제주4·3 북한 지령설 발언과 관련,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해서는 안될 발언”이라며 “4·3유족과 도민들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국민의 힘 모든 당원을 대신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강대희기자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국기자

“기존 감귤원 고품질 경제과원으로”

제주도, 21일까지 지원사업 참여농가 추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당도 및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이는 기존 감귤원이 고품질 감귤생산 경제과원(원지정비)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이달 21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37억원(도비)을 투입해 차세대 경제

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신청 결과 155농가·58ha가 접수를 마쳤으며, 남은 잔여 물량(12ha)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자유무역협정(FTA)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감귤재

배 농가 중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전농업,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겸업농이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최소 1000㎡ 이상에 대해 노지감귤은 한도 없이, 하우스는 1ha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4315만7000원/0.5ha(사업비 60%)다.

추가 접수는 농업경영체(사업필지 포함) 및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2013년 1월 1일 이전 조성된 감귤원은 신청할 수 있다.

감귤목이 노령화된 감귤원인 경우 낮은 생산성과 밀식재배로 인해 농작업 투입이 과도해져 생산비는 증가하고, 생산되는 감귤의 품질은 낮아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제주도는 농가 희망하는 우량묘목의 구입비용과 함께 이랑 및 배수로 조성, 토양유실방지 및 자동방제시설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4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 19일 제주 북콘서트 개최

제주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 마지막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씨가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의혹’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3시 제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리는 북콘서트는 1부 ‘패널과 저간담 토크’와 2부 ‘저자와의 대화’로 나눠 진행된다.

패널로는 황의봉 전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장,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고부건 법률사무소 부건 대표 변호사가 참여한다.

위영성 기자

(사)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출범식 및 이사장 취임식

(아기새둥지)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제주도 협의회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 대책협의회로 새롭게 재탄생되어 아래와 같이 출범식 및 이사장 취임식 행사를 하오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내 용 : (사)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 일 시 : 2023년 2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하귀 노팅힐컨벤션 (제주시 일주서로 7020, 5층)
- 주최·주관 : (사)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 연락처 : 이 사 장 조 영 기 010-4104-8556 사무총장 홍경수 010-9017-3366

※ 화환은 쌀 화환으로만 보내주세요

(사)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이사장 조 영 기

나주김씨 인충공파 두남공계 문중회 총회

나주김씨 인충공파 두남공계 문중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 2. 24. [금] 12:30
- 장 소 | 비원 3층 [수목원 입구]
- 회의의안
- 제1호 의안: 2015. 2. 5. 개정 회칙 추진의 건
- 제2호 의안: 문중회의 기본재산 중 제주시 노형동 3065-1 잡종지 550㎡와 같은 동 3065-13 잡종지 3,082㎡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소재지 동의의 건
- 제3호 의안: 회칙 개정의 건
-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5호 의안: 기타
- 문 의 처 | 김 인 [010-5391-4207] 김형진 [010-3697-3673]

2023. 2. 15.

나주김씨 인충공파 두남공계 문중회
연고항존자 김 승 필
회 장 김 창 택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정기총회

2023년도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2023년 2월 20일 (월) 19시
- 장소 :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
- 참가범위 : 경희대학교 및 경희대학원을 졸업한 모든 동문
- 회비 : 3만원(부부동반 5만원)
- ※ 문의처 : 사무총장 김보균(010-2786-6734)

경희대학교 제주총동문회
회장 김태운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